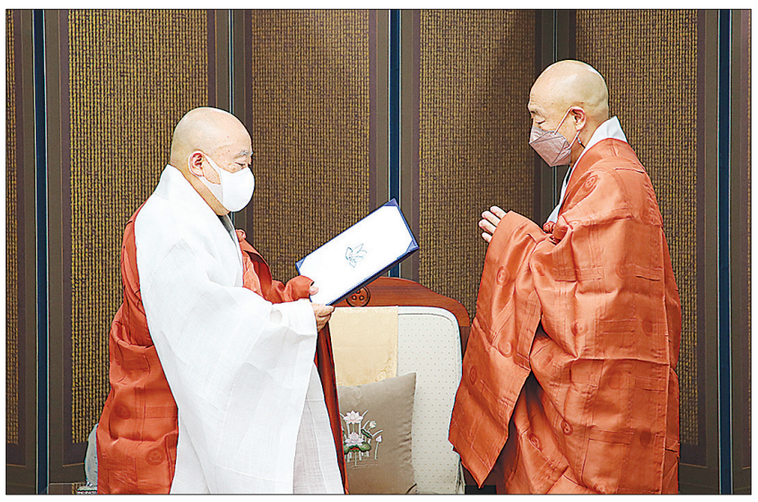
조계종 제5대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임명

"군승 처우 개선 최우선 과제로" 포부 밝혀

해군법사 역임, 인천포교 앞장
군승충원 등 종단과 협력 강화
원행 스님 "청년 포교 활성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7월 20일 제5대 군종교구장 선일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5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인천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선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코로나19로 포교가 힘든데다가 청소년 학생법회가 사라지고 대불련을 위시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군에 있는 청년불자들을 포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임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종단에서 군포교에 임하라는 부름에 마지막으로 갈음할까 한다. 1979년 해군법사로 임관해 군 포교 현장을 다니며 그 원력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승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장병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 전임 교구장 스님이 했던 일들을 이어 계룡대 홍제사 불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임명된 선일 스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스님은 1976년 운기 스님을 은사로 대흥사로 출가,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79년 군승 포송 초기 군법사로 임관해 1986년까지 해군에서 군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했다. 대위 전역 후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특별비구계를 받았다.

스님은 미국 봉황사 주지에 이어 현재 인천 법명사 부루나포교원 회주로 있다. 스님은 특히 부루나선행회를 구성해 지역포교에 힘썼다.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지역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제공과 사랑의 연탄나눔봉사, 환경정화활동, 대학생 장학금 지원활동 등을 적극 전개했고, 인천불교총연합회를 이끄는 등 불교 교세가 약한 인천지역 포교를 일궜다.

스님은 군승 충원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종단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선일 스님은 "가톨릭의 경우 16교구로 신부 수가 적지만, 한 교구에서 10명씩 의무화하여 군신부로 보낸다. 군승은 자원이 부족해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군승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임명식에서는 향후 교구본사회의 등에서 군승 충원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교구본사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로 논의됐다.

한편, 원행 스님은 4대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에게 "4년간 여러 군법당에 평화의 불을 밝히고, 홍제사 법당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노고가 크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 덕분에 군부대에 십선계 수계를 군에 정착시키고, 58곳 법당에 평화의불을 봉안했다. 홍제사 건립 후 평화의불 봉안 등 새로 임명된 선일 스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군포교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재위촉

원행 스님, 7월 20일 위촉장
'생활찬불가 운동' 지속 노력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에 박범훈 현 원장이 재임명됐다. '생활찬불가 운동'을 통한 찬불가 활성화를 이끌어 온 박 원장은 불교음악 확산을 통한 대중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사진>

원행 스님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음악에 남다른 원력을 세우고 이끌어 온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불교음악원장으로서 불교음악 발전과 대중화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훈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은 있지만, 포교를 위한 '생활찬불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불교음악학회가 설립된 덕분에, 현재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연구 내용을 논문집으로 출판해 불교음악의 학술적인 이론 정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원장은 원행 스님의 조언을 토대로 "역대 조사 가운데 불교문화 및 불교음악 분야에 기여한 분들의 업적을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작품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찬불가를 더 많은 불자들이 배우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원장은 "봉은사의 경우 사찰합창단만 찬불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법회 전 간단한 찬불가 강좌를 통해 모든 불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찬불가 대중화를 위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불교음악원 덕분에 봉은사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만 5개일 정도로 불교음악 및 찬불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며 "불교음악원의 노력과 함께해 불교음악 활성화를 일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행 스님은 "더욱 큰 원력으로 전세계적 음률을 아우르는 불교음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더불어 불교음악에 사용되는 악기 등을 연구, 고증하고 수집해 전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지희 기자

"방역수칙 위반 물의 해남 사찰에 '참회'"

조계종, 7월 21일 입장문

해남 지역의 한 사찰 스님들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자, 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며 보다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1일 '방역수칙 위반 등 관련 조계종 입장'을 발표하고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여,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며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이 느꼈을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되돌리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해인사, 재적승 194명에 기초수행비 첫 지급

법계 중덕 · 정덕이상 재적승
신청 받아 심사 후 최종확정
재원 마련 위한 모연 진행도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재적승을 대상으로 기초수행비 지급을 시작했다. 첫 대상자는 분한신고와 결계를 필한 법계 중덕 · 정덕 이상 스님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194명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됐다.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최근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초수행비'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신청자 197명 중 194명의 재적승에게 각 15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기초수행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스님들은 비구스님 107명, 비구니스님 87명이다. 운영방침에 따라 신청자 중 '종단 미등록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소임자스님' 3명은 심사에서 제외됐다.

첫 지급대상자는 연령별 90대 1명, 80대 6명, 70대 15명, 60대 48명, 50대 88명, 40대 35명, 30대 1명으로 집계됐다. 50대 스님들이 가장 많은 비율(약 45.4%)로 확인됐다. 특히 매년 선원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이 지급대상자의 약 44% 수준인 8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인사 측은 "매년 선원에서 안거 수행 중인 스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승려복지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인사는 매월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7월 13일 '해인사교구 재적승 기초수행비 지급 규정'을 제정, 이를 토대로 기초수행비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중덕(정덕) 이상의 기초수행비 대상자는 최대 500명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총 예산은 월 7500만 원, 연 9억 원 규모다.

본말사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십시일반 동참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해인사는 '기초수행비 지급'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교구종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결의하고, 이후 5개 권역별로 '해인사 말사 주지스님들과의 간담회'와 '산내암자 감원회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해인사 측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본말사가 함께 동참해 공의를 모은 결과, 기초수행비 지급에는 해인사 본사뿐 아니라 각 말사와 산내암자에서도 자율적으로 십시일반 동참이 이뤄지고 있다"며 "말사와 산내암자의 십시일반 동참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말사에서는 최대 5구좌(월 75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소요 예산은 본사인 해인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해인사는 현재 '기초수행비 지급'을 위한 모연을 진행 중이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모연된 금액은 해인사교구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해 기초수행비 지급 용도로만 사용된다. (농협 351-1183-0408-53,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성운 스님, 백만원력불사에 1억원

7월 20일 원행 스님에 전달
"불교요양원 불사회향 발원"



조계종이 진행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각계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7월 20일 1억 원을 쾌척했다.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사진>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한국불교복지를 이끌어 온 선구자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앞선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여 불교복지를 일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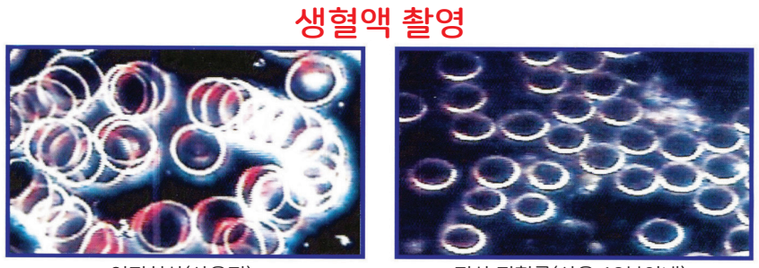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복지에서 종단을 대신해 큰일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위해서도 큰 성금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용기를 갖고 백만원력 불사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재직 시에 원만 성취하기를 기원한다. 불사 성만을 위해 능선에 오르게 하기 위해 이번에 기금을 내게 됐다"며 "백만원력의 의미가 숭고하다. 확고한 원력으로 불사를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운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 중 불교승려요양원 또한 불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승려요양 뿐만 아니라 승려 직계부모, 오랜기간 사찰에 종사한 종무원 등도 요양이 가능하도록 요양원 불사를 이끌면, 불교 교세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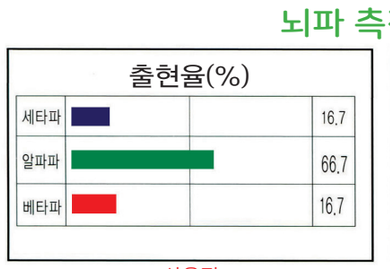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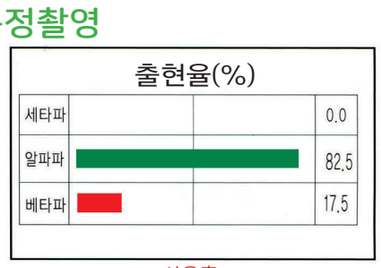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 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 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